

농기계산업 육성 국가예산 확보

익산시,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 역점적 추진

익산시가 정부예산 감축 기조에도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통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 미래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선정된 전통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국비 70억원, 총 108억원)의 올해 사업비를 정량 확보(국비 19.2억원)했다.

이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 농기계를 친환경 전기구동, 지능형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대

상으로 전통화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과 품질검사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팜과 같은 온실환경에서의 작업 수요 증가와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비하는 지역 기업의 전통화 핵심부품 개발을 도와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국비 100억원 총 150억원),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민간투자 68억원, 총 68억원)을 통해 지역 농기계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실증을 위해 농작업 데이터를 가상 물리 시스템을 통해 확보·활용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와 연계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수요형 부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유관 기관 간 기술 지원체계를 마련해 트랙터 전통화 핵심부품 및 탄소복합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농기계 기업들의 연구기술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기계 제품의 전통화와 농작업 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농기계 기업의 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농기계의 자율주행·자율작업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산업의 국가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구매 조건부 제품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수산물종합센터가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의 대상으로 선정돼 4일 공공와이파이 설치 착공식을 가졌다.

전통시장 이용자 불편 해소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공공와이파이 착공

군산 수산물종합센터가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의 대상으로 선정돼 4일 공공와이파이 설치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공공 와이파이 설치지는 2022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KT, 동남성정위원회의 상생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었으며, 대구 칠성종합시장에 이어 전국 2번째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에 설치된다.

이번 사업으로 인터넷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져 수산물종합센터를 이용하는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5월 본관동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서해

안 대표 수산물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생관리, 친질 등 기초질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기업을 토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은누리상품권 발급 행사 대상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순환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내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 50억 원 이상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이루어낸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규개장 이후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약취민원 44% 감소... 과학적 데이터분석 약취저감 성과

익산시, 기상특성 고려한 축산약취 저감대책 마련

익산시가 약취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취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익산오투 24' 앱으로 신고된 약취민원이 총 1,043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858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로 시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취발생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

시는 약취행정 추진의 방향성 점검을 위한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약취신고 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 표적 저감 대책의 약취저감에 확산을 얻

었다.

분석 결과, 약취민원은 9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이중 가족분노 배새가 74%로 가장 많았다(가족분노배새 74%, 공장배새 15%, 하수구배새 5%, 기타 6%).

특히 여름에 남서풍·남동풍 계열의 바람 불고 야간에 풍속이 약해지면서 무풍의 경우 약취 발생빈도가 증가했다.

야간 온도가 22°C이며 습도 86%로 높고 남동풍이 풍속 1.3m/s로 나뭇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로 약취에 부는 기상 조건일 때 약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는 이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시 전체 2개소에서 첨단 무인 감시시스템으로 24시간 약취를 감시해왔다.

기상데이터 2개소로 바람 방향을 분석하고 약취 모델링 시스템으로 약취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약취 발견자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약취 저감을 지시하는 등 적극 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시는 익산 남부지역 축산약취 원인 해결을 위해 인접 시와 협업 행정으로 약취방지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다각도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상 특성을 고려한 축산약취 저감 대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임신·출산·영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군산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된다.

고위험임신부 의료비는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

료비의 90%(300만원 상한)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500만원,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쌍태아 이상 돌봄 시간을 단태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지원하며, 산태아 이상은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을 증원하여 지원하거나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인력 2명 유지 시, 태아 수에 따라 수당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고 산태아 이상

지원 기간은 15일, 25일, 40일로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 산모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육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유천생태습지, 야간경관 조명 '새 단장'

익산시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가 밤이 밝아오는 휴식명소로 새 단장했다.

시는 유천생태습지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어린이놀이 시설을 교체해 야간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개선했다.

유천생태습지의 하늘언덕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에 어둡고 캄캄했던 하늘언덕 산책로에 빛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시민들의 인력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하늘언덕 정자에 초승달 경관 조명과 그늘막 그네를 설치하여 정상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습지와 탁 트인 경관을 볼 수 있어서 지친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천생태습지 아가솔 근처에 있는 생태놀이터의 조합놀이대과 그네도 교체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하늘언덕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점등되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발굴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시민정보화교육 15일부터 무료 운영

군산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2024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을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시민정보화 교육 참여를 원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하며, 1월 15일부터 교육예정인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입문, 파워포인트 과정은 1월 8일 0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군산시청 전산교육장(8층)과 수송동 시립도서관(4층) 전산교육장 2개소에서 동시 운영되며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2024년도 교육과정은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입문, 스마트폰 활용,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영상 만들기 등 9개 과정으로 54회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1,692여명 정도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농기센터, 기획생산 분야 자체사업 신청 접수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과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획생산 분야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예생산 기반 구축 지원 분야 3개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전라작목 육성 지원 분야 5개 사업 등 2개 분야 8개의 사업에 15억 5,900만원을 지원하며, 1월 5일부터 1월 29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농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획생산분야 사업을 추진해 군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